



우리는 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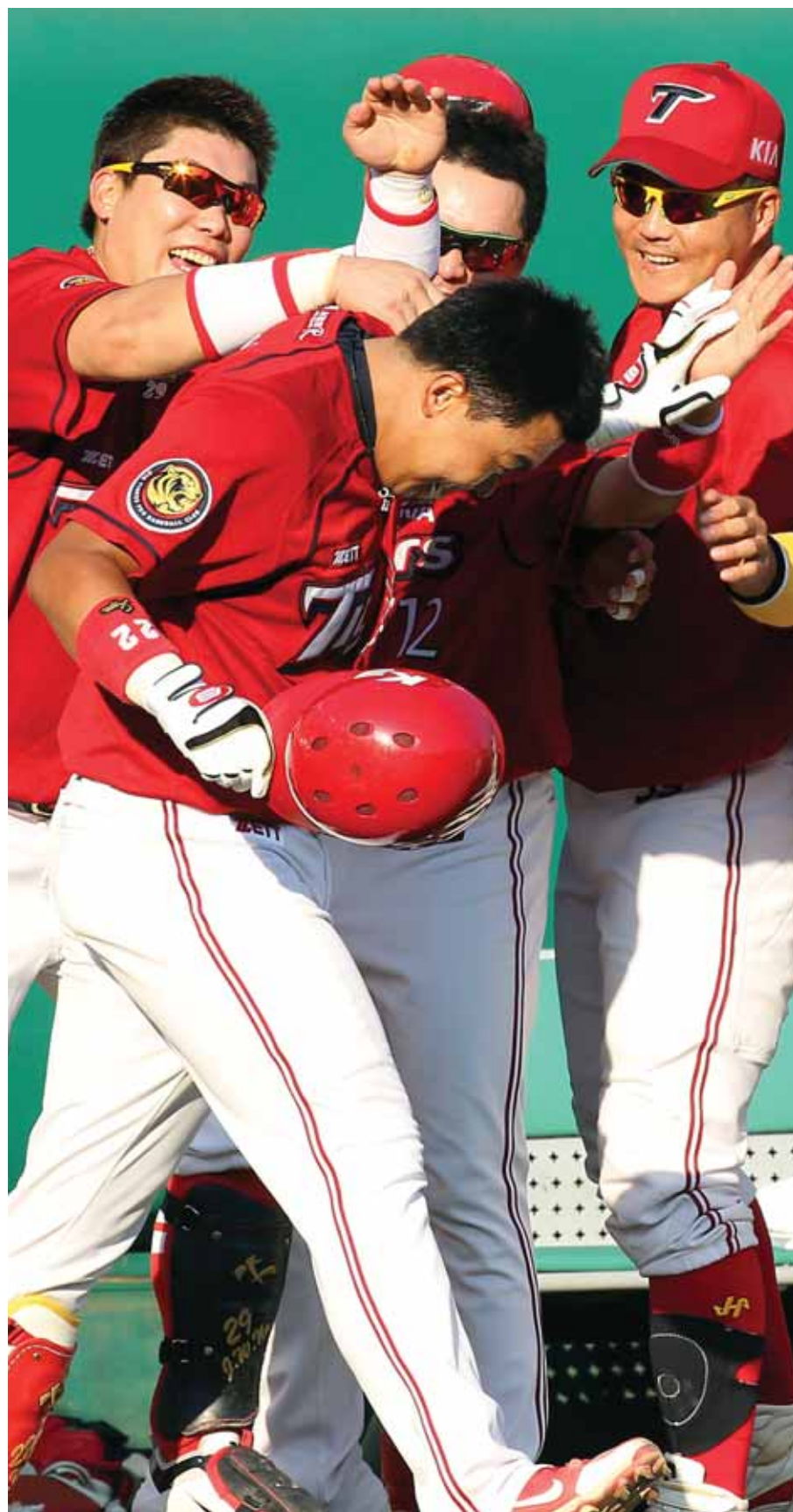
2012 신안 자은 국제철인3종경기대회가 26일 오전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여든 300여명의 철인들이 출발신호와 함께 힘차게 바닷물로 뛰어든다.

/신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빅리거 맞대결’ 서재응 완승

## 5이닝 무실점 호투... 박찬호 5회 못 채우고 강판

‘영혼의 배터리’가 꺼져가던 가을야구의 불씨를 살렸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0 승리를 거두며 4연승을 찍었다. 서재응이 5이닝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지난 4일 두산전 이후 22일 만에 시즌 6승을 거뒀고, 광주일고 시절부터 서재응과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김상훈이 시즌 첫 홈런을 3점포로 장식하며 활짝 웃었다. 서재응과 박찬호, ‘빅 리거’의 대결로 눈길을 끈 이날 경기는 2회 일찌감치 승부가 갈랐다. 2회초 2사에서 KIA 조영훈이 좌전안타를 때려내며 투수전의 호흡을 깬다. 박기남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상훈이 좌측담장 넘어가는 홈런포를 터트리며 순식간에 3-0이 됐다.



2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2회 선제 3점 홈런을 때려낸 KIA 김상훈(왼쪽에서 두 번째)이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 한화 꺾고 KIA 4연승 김상훈 시즌 첫 홈런

선취점을 내준 박찬호는 3회를 삼자범퇴로 막아냈지만 4회 2사에서 볼넷 2개를 내주며 흔들렸다. 5회 선두타자 이용규의 안타에 이어 김선빈과의 승부에서 다시 또 볼넷을 기록한 박찬호는 김원섭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2·3루에서 조기 강판됐다. 박찬호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린 KIA 타선은 나지완의 1타점 적시타와 안치홍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7연패의 부진에서 극적으로 회생한 KIA는 4연승을 잇기 위해 비에 로테이션이 밀린 선발 김진우와 윤석민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5회까지 61개의 공을 던진 서재응이 팔꿈치가 좋지 않자 선동열 감독은 6회 바로 김진우를 마운드에 올렸다. 김진우가 첫 타자 이화준에게 좌전안타를 내줬지만 오선진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투 아웃을 잡아냈다. 김선빈의 호수비까지 더해 이닝을 마무리한 김진우는 7회도 삼자범퇴를 막으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 8회에는 에이스 윤석민이 자원 등판했다. 김경언의 2루 땅볼에 이어 최진행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윤석민은 우익수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9회 출격할 마무리 최향남이 볼넷 2개를 더해 2사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손영민이 2루 땅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영봉승을 완성시켰다. 타선의 침체로 7연패의 늪에 빠졌던 KIA는 최근 4경기에서 5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며 4연승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전남 선수들 또한번의 런던 드라마

## 29일~9월9일 패럴림픽... 한국 “11위 목표” 탁구·양궁 활약 기대

광주·전남 출신의 선수들이 런던에서 또 다른 감동드라마를 쓴다. 2012 런던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오는 29일 개막해 내달 9일까지 열전의 무대를 이어간다. 165개국 7000여명의 선수들은 20개 종목에서 503개의 금메달을 놓고 장예를 넘어서는 경쟁을 펼치게 된다. 보치아, 양궁, 탁구 등 13개 종목에 1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13개의 금메달과 함께 종합 11위를 노리고 있다. 선수단은 8월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런던올림픽에 이어 또 다른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전남출신 선수들이 감동 드라마의 주연을 꿈꾸고 있다. 장애인 탁구와 양궁의 중심지인 광주에서는 9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광주의 첫 장애인실업팀인 광주시장애인 탁구팀 소속의 김공룡, 박호근, 조재관, 김민규, 김영건, 김정길 등 6명이 금메달

매신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10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장애인탁구대회에서 한국의 종합 2위를 겸인했던 이들은 이번 패럴림픽에서도 한국 탁구의 위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2012 베이징 패럴림픽 여자양궁 리커브 단체인 은메달리스트인 김란숙은 김용욱·이명규와 함께 양궁대표로 나서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경배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9명의 광주 선수들이 런던을 찾았다. 메달 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종목에서 모두 메달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탁구에서 1~2개의 금메달,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의 효자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격에서도 전남 대표 이윤리의 활약이 예고된다.

완도 출신의 이윤리(R8 소총 3자세)는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영광의 얼굴로 수차례 비공인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한국 장애인 사격의 에이스다. 이윤리를 앞세운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조준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대장정에 나선 장준배 단장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고흥출신으로 진흥고를 졸업한 장 단장은 1984 로스앤젤레스, 1988 서울, 1992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과 5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출신.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2008년 베이징 대회까지 탁구대표팀 감독을 지냈고, 지난 2010년에는 고흥에서 열린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중·일 청소년들 광주서 화합의 무대 오늘까지 종합경기대회

한·중·일 청소년 선수들의 우정과 화합의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20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지난 24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열전에 돌입했다. 3개국에서 찾은 1000여명의 선수단은 11개 종목(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농구, 배구, 럭비, 배드민턴)의 우승을 놓고 광주월드컵경기장, 동신고 정구장, 정광고 체육관, 영주체육관 등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대회 첫 경기로 치러진 축구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5-1로 꺾으며 첫 승전보를 알렸다. 한국은 26일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3-2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렸다. 육상에서는 중국의 질주가 돋보였다. 중국은 남녀 400m 계주는 물론 남자부 멀리뛰기, 높이뛰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등의 1위를 싹쓸이 하며 육상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편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27일까지 스포츠 대결을 벌인 뒤, 28일 문화 탐방을 통한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진흥고 11년만에 대통령배 우승 도전 경기고 2-1 꺾고 오늘 신일고와 결승

진흥고가 12년 만에 대통령배 탈환을 노린다. 진흥고가 26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제46회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준결승에서 경기고를 2-1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지난 2001년 ‘괴물’ 김진우를 앞세워 대회 정상에 오른 진흥고는 11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야탑고와의 8강에서 3-2로 진땀을 거뒀던 진흥고는 준결승에서도 1점차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진흥고가 2회말 박창빈·박진두·김태음의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지만 4회초 우전 안타로 출루한 경기고 최준식이 도루에 이어 포구 악송구로 3루를 밟은 뒤, 심우준의 희생플라이로 득점에 성공했다. 1-1로 맞선 5회말 상대의 폭투로 진흥고가 역전에 성공했다. 볼넷으로 나간 박진두가 김태음의 희생번트, 오겨래의 안타로 3루에 안착했다. 그리고 상대 투수의 폭투 때움을 파고들며 전세를 뒤집었다. 9회초 진흥고가 경기고 이상호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주며 마지막 위기를 맞았다.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우익수 박창빈이 정확한 송구로 3루에 뛰어든 주자를 잡아냈다. 그의 사구에 이어 중계 플레이 실수가 나오면서 2사 2·3루. 이번에는 투수 허영민이 삼진으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며 진흥고의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진흥고는 27일 오후 6시 덕수고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신일고와 우승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미림, 시즌 첫 메이저 한국여자오픈 우승

이미림(22·하나금융그룹)이 내셔널 타이를 골프대회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기아자동차 제26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미림은 26일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653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쳤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이미림은 함께 7언더와 281타를 적어내 통산 2승을 수확했다. 이번 우승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단번에 상금 랭킹 2위(2억3600만원)로 올라섰다. 이미림과 김자영, 김지현, 김혜윤이 공동 선두로 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승부는 의외로 초반에 가려졌다. 김하늘과 김혜윤은 5언더와 283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김소영이 3언더와 285타로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